

오메를망 그리운 삼촌님과 은차롱에게 2-1

예운 바람 물이치던 추운 겨울도 간곳없이 사라지고 만물이
태동하는 맑은 봄이 꽃을 다가와 우리 모두를 따뜻이 품어주는
이름에 삼촌님의 허냥 그리운 필필과 키덜생스런 조카들이 사진
찍고 보니 이 마음 감개무량하기만 합니다.

위팔리 언덕에서 나스스길 많이 뚫고 다니는 이땅, 이교향을
못본다게 그리워하는 봄을의 피눈물처럼 마음을 안고보니 왜 그리
이런데 무성히 노아오던 풀복걸고 건들늬어인 카와정들, 나쁜
노크, 조약들 갸나, 목한양은든 눈악리 뜨방에 감아옵니다.

자남을 살던 절은 너드메냐, 그리고게 옛정은 너디아루냐, 송고중,
정하교정, 농고다리, 옥선대리, 하늘을 담은 너디나방광리대... 떨어던
꽃물기, 목양저치던 살기를 조화 삼촌의 옛길 알리후 버티었어
나 품을 놓아 키기름이더, 마음을 닦 놓으며 삼촌에 대한 사별후
그리움을 쓸데없습니다. 그와 함께 이쪽은 한바드, 다 한바드원
정말은, 그러니 너드도 가까이, 이나 사랑 처음 삼촌대님 수, 너
누희, 누정 태정, 누정 해정, 누정, 누정, 누정, 누정, 누정, 누정...
노래도 이글들, 이가리가 풍아하게 희극들 흥게몽게 피어나는
하늘이 낮아하게 떨어 환희의 그움을 품어줍니다.

정말이지 아제는 너드도 가까이, 너드도 눈바름에 다가온
행복의 상용, 눈물의 상용이 됩니다.

피사를 받고 우리는 사랑을 주려고 노니 정말이지 말도 안
맞다로 할선을 주저게 되었습니다. 귀는 존경하고 그리운
너의 삼촌님에 말, 말, 호은은 너덜너덜히 그들을 더 애틍히, 더
뜨겁게 다라리너리라 밝힌합니다. 처정삼촌님으로 그리고
고마운 너의 사랑님들이 정느낌이고 뜨거운 사랑님에 만드사,

2-2

반드시 알아드리려고 편지 작성합니다.

비상한 상황은 훌륭한 상봉의 편지들이 될 것입니다. 상봉은 그것에서, 귀히 들은 이야기에서 훌륭한 노력의 열매를 귀히 듣고 또 듣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영혼이 생취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쓴 책에는 1930.1.6 동아일보에 실렸던 시인 박아재의 서 «비미니이서»가 편집되어 있었습니다. «... 비미니이서라 이런 이야기는 웃음을 참든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웃음을 보지 않더라도. 따라서 그 웃음을 예음에 흡수해서 이런 이야기는 흡수하는 비미니가 좋아해서 그 논리를 무르익게 흡수해서...»

우리의 피고들 당카 그리움의 눈물은 한희를 두들길 뜻기없는 것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웃음이 바야흐로 행복에 도달하는 상봉으로 달음질치고 있습니다. 꽃과도 흥이냐? 달이 뜨는 이름이냐? 산봉우리 나무이냐? 지름을 천년, 만년 맞잡이로 그려내며, 그 리는 사람들이 깨어든 잊으니 할 것 생취되는 것입니다.

상봉의 영을 누리는 영혼의 피도인 처연상봉의 고별하는 인물은 반드시 어떻게 몸짓은 되우려, 철을 자릴 갖는 몸짓을 안아올 것입니다!!!

꼭다 지렁이처럼 동양에 유일한 더 많은 일을 해서 더 많은 우리 처사자의 흥분들이 두근두근 땀을 흘리게 됩니다. 흥분하는 비안 눈을 아늑게 붙였으니 햇살이 남이 들이던 대항을 들이옵니다. «구름더미 멀리있는듯 언제나 그리운 비고향

몸은 차고 차를드가고 이리든 풍년이 되는데
언제 가랴 언제 가랴 니정든 고향으로 언제 가랴
꿈이라든 꿈이라든 니정든 고향으로 주고받이리.
주고받이, 주고받이 니정든 고향으로. 철을 흘리며»

은차풍이 언성을 바라는 조카, 상봉이 사랑하는 조카 영철 올림
97.3.16.

그리운 조카 영철이 어찌

네 편지 여러 차례 받고 마음 든든하고 기쁘기 한량없구나. 이미 이룩한 네 자신의 가정과 부모님 동생을 돌보며 수고가 많다. 보내준 감흥이 사진 잘 받았고 고히 간직하였다 아주 똑똑하고 진실해 보여 매우 자랑스러웠다

특히 네의 글과 글씨체의 우수함이 모두를 감탄하고 있다. 마치 네의 할아버지가 다시 환생하신듯 이주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네가 알려준 할아버지 시, 1927. 1. 6. 동아일보에 실렸다는 "어머니 이시여"는 나로서는 부끄럽게도 초문이라 즉각 동아일보사에 조희환 경과 신문사에서 사본을 우송하며 주어 잘 읽고 감상 하였으나 1933년 부터 1939년 까지의 고려시보의 사본이 입수되어 할아버지 글을 많이 보관하고는 있지만 이 아주 젊어서 쓰신 시는 서로이 소중한게 간직하게 되어 너에게 참으로 감사하고 있다.

개벽지에 할아버지 글이 실렸다는 소식을 들은 듯 한데 혹시 아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기 바란다. 개벽지 뿐 아니라 다른 할아버지 글이 실린 잡지, 문예지, 신문등 아는 것도 꼭 알려다오, 너에게 부탁을 하는 내가 부끄럽고 미안하리.

종지에 생이별을 할때가 어렸을 때라 심하여 할아버 할머지 사진도 한장 없었었다. 다행히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순천) 사진은 구하였었다. 네의 아버지 사진은 이번에만 갖게 되었을 정도로 나는 모든 것이 짐작하였다 심지어 향련을 몰라 너의 이름에 쓰고 있는 "영"을 쓰지 못하고 "수"를 썼으며 다음대는 "영"으로 끝자를 쓰고 있는 것이다!
수근 수희 수종 수관 그리고 태영 준영 서영 이렇게 말이다.
珠權 姬 瑞 翁 泰榮 俊 瑞

1997. 5. 6. 박광현 (2/2)
(2)

다시 말하지만 정말 매우 반갑다. 모든 것을 더욱 정진하여
부디 큰 사랑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 다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기쁘고 자랑스럽게 모일 때가 틀림없이
올 것이다. 할아버지가 천재셨듯이 할머니가 예쁘고 다정하시고
여성다우셨듯이 우리의 후세들은 모두 똑똑하고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남보다 월등한 자랑
스러운 행동임도 입증될 것이다.

보고 싶은 조카 명천아. 이 삼촌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고 고향을 항상 그려왔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고향의
부모님 덕이라 생각했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반듯이 조상님들이
도우시리라고 위안하여 왔다.

너무 사설을 늘어 놓았다. 우리 다같이 끝까지 자랑스러운
가문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자

또 서신 왕래를 기대하며 부모님 형제들 아이들 모두 행운이
깃들기를 두손 모아 기원한다

삼촌 일본에 와서 삼촌 씬

1997. 5. 6.

조카 영철에게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던 7월 26일자 네 편지를
받아 보고 무척 기뻐하였다. 아버님 그리고 가족들 모두
잘 계시다니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이다.

네의 애절한 필체는 항상 우리를 감격하고 감동케 정제한다
이와같이 편지로나마 소식을 주고 받는 것이 나는 매우 다행
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 금치 못하고 있다.
정현 큰 아버지 댁 가족들의 요사이 소식은 어떠한지, 큰 변화는
있었는지 궁금하다.

이곳에 가족들도 큰 변함없이 잘 지내고 있다.
전번 행운으로 잠시 일본에 갔을때 적으나마 정성으로 보낸
송금, 복잡했지만 잘 받았다니, 그리고 유용하게 썼다니
어려운 중에 직만한 성의가 보람있게 느껴진다.

마침 그때 일본에서 신세진 분이 멀리 이곳에 들르셨기에
이 편지를 급히 쓰게 되었다. 좀더 가까운 곳에서 불어 빨리
받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급히 쓰다 보니 말이
잘 치지가 않는다. 그리고 이분에게 이 편지를 일본에서 너에게
보내는 길에 다시 정성으로 애써 직만한 미화 1,000 원을 송금
하도록 부탁 드렸다. 현재 나로서는 이 방법과 경로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없어서 전과 같이 보내는 것이다. 적으나마 나의 최선의
성의이니 아버님에게 전하여 주고 유용하게 써 주십사 말씀드려라.

나의 큰애, 네의 사촌 동생인 수근이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는
국제 운송회사로서 중국에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는데 수근이가
중국 지점들 담당으로 일하고 있다. 삼시 중국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지점들과 항상 연결하고 있으며 수시로 중국 지점들
방문하고 장기 체류하고 있다.

이곳 멀리로 편지를 보내는 것 보다 중국 지점 수근이 앞으로
편지를 보내면 훨씬 빨리 도착되지 않을까 해서 주소를
알려 주니 한번 이용하여 보아라. 수근의 말에 의하면 중국에는
많은 조선족이 살고 있으며 본국과 많은 교류가 있다고 한다 물론
편지도 편리하게 교신하고 있다고 말한다.

1997. 10. 15. 반광현 (2/2)

(2)

수근이 주소로 편지 보낼때 아래 주소를 이용하면 곧 수근에게 전달 된다고 한다.

Soo KEUN. PAK
FIRST EXPRESS INT'L, DALIAN BRANCH
ROOM A-7012 HENGTONG MANSION
No. 28 ZHIGONG STREET, ZHONGSHAN DISTRICT
DALIAN, P. R. CHINA 116001

어려운 일이라 생각하지 만 한번 중국에 나올수는 없는지, 특히 노령이시라 무리가 되겠지만 아버지와 함께 중국을 여행할수 없는지 궁금하다. 정현이 형님께 한 조카도 동행하여 보면 더욱 좋겠으나 다 부질없는 꿈비 아는지 모르겠다. 어렵고 여비도 적지 않게 들겠지만 나는 후회 그런때를 생각하여 열심히 저축하고 있으니 매우 우리가 되더라도 한번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영신군처럼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많은 시간의 여유가 없어 불가능하나 그러나 만약 여행하게 되어 중국이 오게 된다면, 수근이가 주재하는 대련의 신의주에서 가까운 수근이 사무실에 오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나도 잠시 대련에 비행기를 이용하여 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것이 꿈만은 아닐듯 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 큰 50년의 한을 풀고 오랜 회포를 풀고 오랜의 슬펐던 일들 밤새워 이야기 하며 슬프고 한 맺힌 지난날 달려 보고 싶구나, 여비는 너의 모두 것을 감당할수 있겠다.

중국에서의 상봉이 불가능 하더라도 인편을 알아 보도록 수근이에게 말해 놓았다.

지난 5월에 일본에서 보낸 편지에서 부탁하였던 것이 이번 너의 편지에 언급이 없어 다시 한번 부탁코져 한다.

편에 할아버지의 글에 대하여 말할때, 옛날 개벽지에 할아버지 글이 실렸었다고 말한듯 하는데 혹시 아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기 바란다. 개벽지 뿐 아니라 할아버지 글이 실린 다른 잡지, 문예지 등 아는 것이 있으면 알려다오. 나는 할아버지의 옛날 쓰신 글들 모아 놓은 것을 본분으로 알고 자랑스럽게 보관하고져 한다.

글을 너와 너의 가족, 아버지, 큰아버지 가족 모두의 건강, 행운을 기원하며, 97. 10. 15

1998. 1. 6. 박영철 (1/2)

또 한해 리벌의 녀름을 새기며

자나깨나 그리운 존경하는 삼촌님,

상봉의 그별친 장장 만세기를 헤아려 대산을 이루었건만 한해도
류수처럼 흘러 새해가 되었습니다

그리움에 넘쳐, 천지를 주름잡는 존경심을 달아 먼먼곳의 삼촌님께
살가 허리굽혀 무릎 꿇고 설세배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부디 건강하시어 상봉의 그 언덕으로 경주해주십시오

삼촌어머님과 수근의 가족, 온가족에게 설인사를 드립니다.

설날에 제가 아버지를 찾아가 뵈웠는데 또 한해를 상봉없이 보내는
것으로하여, 은길에 비해 너무도 짧게 남은듯싶은 인생길 때문인지 꼭
안색이 어두웠습니다. 자식된 심정에서 정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보다 꼭 가까워진듯 싶은 마음으로 펼쳐도
차주 주고 받고 상봉의 무거운 대문도 떨어볼 계획입니다.

삼촌이 지난해 10월 15일 일흔을 경유하여 보낸 편지를 12월 9일
에 편감게 받아보았습니다. 추석날에 있는 사연을 편지에 적어 보내
고도 그 소식이 가뭇으러면 새해나 잡혀야 겠구나 하고 여간 조바심
이 컸었는데 정작 편지를 받고 그 감격은 이루 헤아릴수 없이겠습
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식이 늦은것은 감격스러운 지성금, 송금이
새해 1월초까지 도착하지 않은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도 여리차려 50여리길을 단숨에 걸어오셨
었는데 여저 무소식입니다. 사리원 합영은합지점으로 오는데 수차 전
화를 했지만 늘저까지 무소식입니다.

그리고 송금을 찾으러 대 어디에 있는 누가 보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저희집주소로 보내되 그것이 꼭 있어야 합니다.

다음번 편지에 꼭 알려주십시오.

삼촌님은 하루 한시라도 티 벨리 소식을 전하고 싶어 그토록 무진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럴수록 정말이지 피는 물보다 전하고 인정은 국경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납니다.

앞으로 아버지 세대가 그토록 갈망하던 상봉별관을 수근과 제가 댁댁히 이니 받아 상봉실현의 좋은 년월을 세겨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추석전에 삼촌님의 성의가 깃든 그 비음을 안고 할아버지 큰 아버지 모소에도 갔었습니다. 그 소식은 만외편지에 썼습니다.

종국에서의 상봉실현은 좀 힘들것 같지만 소식교환은 가능할것 같습니다. 수근이가 그렇게 가까이 있다니 아버지도 당장 만나는것만 같다고 여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적극 환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상봉의 큰 정성다리를 또 하나 넣은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심혼을 강그리 바쳐 아버지세대의 한을 풀고 기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님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해방권이 저의 할아버지는 「고려선보」사 명예회장이었고, 동아일보, 「경향신문」사의 편집국장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프작가들과 교제도 있었고 글도 썼는데 저에게도 도와준것이 있지만 그리 많지 못합니다.

큰아버지(박장환)가 생존해계실때 제가 글을 더러기 쓰는것을 보고 할아버지 애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이들은 박재청한테 작풍은 «박아자»(식물의 햇아자라는 의미)로 발간했다고 합니다. 전쟁이후의 출판물에도 «박아자»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제자라는것, 등대 대해 이야기했는데 가능하다면 오랜 문인들에게 사실여부를 알아보아주십시오. 개별집저도 그래 할아버지의 글은 차보르 될것입니다.

편영하는 삼촌님의 가한 품 건강을 바랍니다.

은 가족의 앞쪽에 기록 행록이 차례차례를 벌리면서 가한 잡니다.

* 동남 불동인은 삼촌이름으로 했겠지요? 소식을 기다립니다. 정말로요, 새, 새강은는 조가 영철동리

1998. 1.30 박성현 (1/2)

보고싶은 동생 광현에게

이젠 큰 50년 세월이 흘러 모습은 서로 달라졌어도
그 어린 시절의 마음과 모습대로 말하는걸 용서해
다오. 꿈도, 환상도 아닌 현실로써 우리의 서
신, 사진으로의 상봉을 마련해준 행운이 다
시 한번 절하며 감사드리며 몇가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 편지들은 보았다. 알고 넘어
가는 내용들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주지
못하게 됨이 아쉽다. 그간 아버지의 글
이 실린 출판물이나 원고는 그후 다른 책,
원고류와 함께 지금 하나도 남지 않고 있다.
내가 알기에는 "개벽" "고려시보", "별건판",
등에서 아버지의 글을 보았고 그외 시,
기행문, 기사 등 원고도 보았지만 지금
우리 손엔 그것이 없다. 형님이 석한 부문에
쓴 기술 도서가 지금 몇권 있다. 나도
소설이라구 몇편 써보았지만 전광전
이나 전후이나 다 빛을 보지 못했다.
영철이 짠 소설, 시 등을 요즘 쓰고
있는데 그것이 출판물이 실리고 있다.
그러구 보면 우리 가문에서 글 쓰는 걸
대대로 즐겨왔다고 보아지지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평가 된다.
어릴 때 너와 나 - 우리가 상종했
든 많은 사람이 지금 이성이 없구나.

1998. 1. 30 박성현 (2/2)

요행히 죽기 전에 너가 고향 땅을 밟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수십 년 쌓여온 회포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욕심만
욕심이라고 굳이 바랄 수가 없지. 지금
상태에서도 난 기꺼이 만족을 느끼며
죽을 것이다. 그것을 모르고 돌아간 어
머니, 형님의 경우를 아쉽게 추억하며,
... 앞으로 계속 서신 왕래를 하자구,
그런 그렇구 한가지 부탁은 지난해
11월 편지에서 밝힌 송금 건에 대하
여 난 너가 뒤마무리를 잘 해주길
바란다. 누가 어디서 부쳤으며, (구
체적으로) 이곳에서 오지 않았다고 하
는데 만일 부쳤는데 못 받았다고
한다면 책임한계를 가르고 배상을 요
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뒤마무리를
너에게 당부하게 된다. 이젠 늙어서
나도 그저 가족에게 의지하며 사는 형
편인즉 서신 거래는 주를 아들이
도맡아 하고 있거만.

90이 환갑이라구 너나 나나 건강하게
살아서 조국 통일 날을 맞이 할
것을 끝으로 빌며 바란다.

주제87 1998년 1월 30일

개성에서

박성현
상정으로부터